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KES 2025(한국전자전) 삼성전자관에서 관람객들이 '마이크로 RGB TV'의 화질과 색 재현력, 명암 표현력 등을 경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람객들이 LG전자 부스에서 LED 사이니지와 거울을 활용해 만든 88개 정육면체 모듈이 다채롭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연출하는 '키네틱(Kinetic·움직이는) LED'를 감상하고 있다. /LG전자

삼성·LG, '생활 속 AI' 패권 경쟁 가전·디스플레이·로봇 혁신 공개

‘KES 2025’서 AI 기술 선택
삼성 마이크로RGB TV 첫 공개
무빙스크린·AI홈으로 일상혁신
LG 공감지능 기반 AI 갤러리 운영
로봇·마이크로LED로 미래 제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제56회 한국전자전(KES 2025)에서 다양한 인공지능(AI) 제품·기술을 대거 선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가 주관하고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KES 2025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오는 24일까지 열린다.

삼성전자는 이번 KES2025에 주거부터 교육, 비즈니스까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일상을 혁신하는 최신 AI 제품과 기술을 소개한다. 집과 교실, 매장 등 실제 생활환경을 테마로 한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삼성전자의 최신 모바일·디스플레이·가전 등 AI 제품과 기술로 각 공간별 최적화된 AI 솔루션을 구현했다. 특히 전시관 입구에는 대형 LED를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를 구성해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어디스플레이 특화 전시 공간을 배치해 차별화된 디스플레이 기술 리더십을 강조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RGB TV'의 탁월한 화질과 색 재현력, 명암 표현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이동형 스크린 '무빙스타일'도 전시된다. 무빙스타일은 사용자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디스플레이 종류 ▲화면 크기 ▲해상도 ▲제품 색상 ▲스탠드 타입 등 다양한 옵션을 갖춰 202가지 맞춤형 선택이 가능하다.

관람객들은 거실·주방·침실 등 집을 테마로 구현된 전시공간에서 스마트싱스를 중심으로 연결된 다양한 전자제품이 가족구성원의 일상을 쉽고 편리하게 혁신하는 'AI 홈'을 경험할 수 있다.

LG전자는 공감지능(Affectionate Intelligence, AI)으로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워지는 미래 일상을 제안한다. 'LG AI 갤러리'를 테마로 한 900제곱미터(m2) 규모의 전시관에서 공감지능이 적용된 혁신 제품과 기술을 공개한다.

모빌리티 공간 솔루션 '슈필라움'에서는 차량이 이동 수단을 넘어 업무 공간, 팝업 매장 등으로 변하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 AI 홈 허브 'LG 씽큐 온'과 연동돼 탑승객이 "하이 엘지, 다음 스케줄 알려줘"라고 말하면 내부 조명이 자동으로 켜지고 스케줄 시간과 위치를 안내한다.

전시장에는 136형 'LG 매그니트 액티브 마이크로 LED'가 몰입감 넘치는 초대형 스크린 경험을 제공한다. 이 제품은 화소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자발광 디스플레이인 마이크로LED 중 픽셀을 개별 제어하는 능동형 매트릭스 기술을 적용해 섬세한 초고화질 영상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LG전자는 연내 출시 예정인 청소 로봇 신제품인 빌트인형 '히든스테이션'과 프리스탠딩형 '오브제스테이션' 2종을 국내에서 처음 전시한다. '히든스테이션'을 싱크대 걸레받이 부분에 설치하면 사용하지 않을 때 제품이 보이지 않아 깔끔한 인테리어가 완성된다. .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정기선, APEC 포럼서 AI·탈탄소 전략 제시 (HD현대 회장)

APEC CEO 서밋 공식행사

미래 조선 혁신 전략 발표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퓨처 테크 포럼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HD현대는 경북 경주에서 오는 27~30일 APEC CEO 서밋의 부대행사로 '퓨처 테크 포럼: 조선'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정 회장은 연설에서 인공지능(AI)·탈탄소·제조 혁신 등 HD현대의 미래 조선 기술과 방산 중심 글로벌 협력 비전을 소개할 예정이다.

퓨처 테크 포럼은 글로벌 대표 기업과 정부·기관, 학계가 모여 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다. HD현대는 첫 기업 세션을 맡으며 APEC CEO 서밋 공식 후원사로도 참여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조선업의 미래를 만들어가다(Shaping the Future of Shipbuilding)'를 주제로 조선 산업의 발전 방향과 기술 혁신이 논의된다. HD현대의 주요 파트너인 한티팅 잉겔스, 안두릴, 미국선급(ABS), 지멘스, 페르소나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이 지난 6월 24일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한·미 조선협력 전문가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HD현대

AI 등 주요 인사들도 연사로 참여한다.

세션은 ▲해양 방위의 새로운 시대 ▲조선 산업의 현재와 미래 ▲조선소의 미래: AI 기반 제조 혁신 ▲조선 분야 한·미 전략적 협력 등으로 구성되며, 글로벌 조선 산업의 혁신과 협력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HD현대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조선업계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협력 해법을 찾고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조선업의 중심 기업으로서 산업 발전을 위한 통찰과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lehdale@

“기술 리더십으로 ESS 영향력 확대”

이석희 SK온 CEO 연세대서 특강
ESS 확장·안전성 비전 제시

이석희 SK온 최고경영자(CEO)가 전기차 배터리에 이어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시장에서도 안전성을 앞세운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SK온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IBK홀에서 배터리 및 에너지 관련 학과 교수진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CEO 특강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석희 CEO는 ▲전기차 배터리 및 ESS 시장 전망 ▲SK온 기술 경쟁력 ▲미래 성장 전략 등을 주제로 중장기 ESS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 CEO는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늘면서 ESS 수요가 매년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ESS 사업은 전기차에 이은 중요한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액침냉각 기술 등 고안전·고효율 솔루션 ▲고객 맞춤형 통합 모듈 설계 ▲화재 조기 진압 솔루션 등 ESS 사업 주요 전략을 설명했다. 이를 기반으로 북미 등 글로벌 시장 확장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SK온이 강점을 보유한 배터리관리시스템(BMS)과 Z-폴딩(Z-folding) 기술이 대표적인 안전성 차별화 요소로 소개됐다. 이 CEO는 BMS와 관련해 “SK온은 배터리 특성과 상태에 기반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안전진단 고도화 기술’을 개발했다”며 “이를 통해 사이버보안과 기능 안전성 수준을 동시에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SK온의 BMS는 국내 최초로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TÜV 라인란트로부터 국제 사이버보안 인증(CSA)을 획득했으며 기능안전관리체계(FSMS) 레벨3 인증도 확보했다.

/원관희 기자 wkh@

리퍼비시 부재로 반도체 소부장 R&D 단절

테스트베드 막힌 소부장 현실
구형 장비 활용 기반 부재
리퍼비시 제도화 과제로 부상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이 공정 검증 단계에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 신소재와 신장비를 시험할 테스트베드가 부족해 연구·개발(R&D) 효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재사용 가능한 구형 장비를 재투입하는 리퍼비시(중고 재제조) 체계가 대안으로 꼽히지만,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은 경쟁국에 비해 미비한 상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소부장 기업의 R&D 생태계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랩 기반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응답한 국내 소부장 기업의 86.2%가 “공정 테스트 장비 접근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했다. 대기업 중심의 제조 생태계 속에서 중소기업이 공정 검

증에 활용할 장비를 확보하기 어렵고, 공공 랩의 장비 사양과 대기기간 한계도 뚜렷하다. 이에 일부 기업은 신소재 시험에 수개월이 소요되거나 연구 과제를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스트베드 부족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는 리퍼비시 장비의 재활용이 꼽힌다. 구형 장비를 정비·보수해 재투입하면 저비용으로 단기간에 공정 검증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 리퍼비시는 단순한 재활용 개념을 넘어, 과거 공정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된 ‘산업 유산’으로 평가된다. 구형 장비를 유지·운영하면 중소기업이 신소재나 부품을 시험하는 동시에 기존 제조데이터와 공정지식을 국내에 남길 수 있어, 기술 전이와 인력 양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내 일부 기업이 중고 장비를 수리·유통하며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지원 제도는 부재

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활용 가능한 장비가 수출되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며 “검증 가능한 장비가 산업 현장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리퍼비시 산업을 공식 지원하고 있다. 2022년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시행 이후 ‘장비 재활용·개조(Equipment Reuse-Retrofit)’를 공급망 지원 항목으로 명문화했다. 미 상무부 전략보고서에는 “정부 지원은 장비 재활용과 개조 활동에도 제공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으며, NIST와 국방부가 운영하는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커먼즈(Microelectronics Commons)’ 사업에서는 리퍼 장비를 활용한 파일럿 라인 운영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국내 반도체 장비 산업의 고도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리퍼비시 인프라에 대한 지원 미흡이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희준 기자 nauta@

KAI, KF-21 수출 확대위한 협력 강화

한화·LIG넥스원과 MOU 체결

KAI(한국항공우주산업)는 국내 주요 방산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 국내 주요 방산기업 3개사와 함께 KF-21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KAI는 방산3사와 2025 ADEX(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KINTEX에서 협력 분야 확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사는 ▲글로벌 수준의 원가경쟁력 확보 및 원가절감 방

안 공유협력 ▲공동 수출 마케팅 및 산업협력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술, 시장정보 공유 ▲기술·시장정보 공유를 통한 신뢰 기반 협력 강화 등 KF-21 수출을 위한 실질적 협력 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KF-21은 대한민국 최초의 4.5세대 국산 전투기로 최초 수출이 성사될 경우 국가 항공방위산업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국산화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주요 협력사 간 긴밀한 공조가 수출 성공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번 MOU는 이러한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용 기자 lsy2665